

◆ 북미

- 성장하는 애완동물 보험시장
- 워싱턴주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안 투표 논란
- 미국 일부 주들, 전주민대상 건강보험 구상

◆ 유럽

- 영국, 대규모 홍수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
- 프랑스 AXA, “AXA RESEARCH FUND” 설립
- RMS, 1987년 영국에서의 폭풍 재발시 손실규모 추정 발표

◆ 일본

- 대형 생보사들 하반기에 국내 채권 확대 자산운용 계획
- 손보재팬, 자동차보험 상품 간소화 추진
- 니혼생명, 환경보호 개인·기업에 우대대출 금리 적용

◆ 중국

- 중국 기업연금시장 규모 예측
- 중국 보험업계 지난 5년 동안 체질개선 성공
- 중국 자동차보험료 2,000억 위안 시대 개막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성장하는 애완동물 보험시장

- 안전을 추구하는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애완동물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시장조사 회사인 Package Facts에 따르면 2005년 애완동물 건강보험시장 규모는 1조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애완동물과 관련한 보험시장은 매년 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Ohio주에서는 약 1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들이 애완동물보험산업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Veterinary Pet Insurance사(이하 VPI)의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회사 대변인은 설명함.
 -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VPI는 1982년부터 애완동물에 관한 언더라이팅을 시작했으며 애완동물보험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음.
 - VPI에서 제공하는 “superior plan”은 연간 220달러의 보험료로 애완동물의 응급처치를 비롯해 정기적인 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함.
-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매년 400마리의 애완동물들이 3000달러에 달하는 심장박동 조절기를 이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이 신장이식 비용은 8,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이름.
 - 애완동물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는 애완동물보험시장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vindy.com, 10/15)

□ 워싱턴주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안 투표 논란

- 워싱턴주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투표가 예정됨.
 - Referendum 67(이하 R-67)로 불리는 국민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고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액의 세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됨.
 - 이에 따라 R-67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정 변호사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보험사들 간의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음.
 - 워싱턴주에서 영업 중인 4개의 대형 보험사들은 새로운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960만 달러의 비용을 분담하였음.
 - 이들 4개 보험사들은 Farmers, Allstate, State Farm, Safeco 등으로 작년 워싱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3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거두었으며, 자동차 보험과 주택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새로운 법안의 찬성을 주장하는 측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R-67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함.
 -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R-67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불공정한 보험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공정한 보험사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통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새로운 법안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이번 투표를 보험사와 법정 변호사의 이권대립으로만 보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을 요구함.
 - 주장의 핵심은 법안 통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임.
 - 보험계리 컨설팅회사인 Milliman에 따르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체적으로 연간 6억5천만 달러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며 두 대의 차와 집 한 채를 소유한 가정의 경우 약 205달러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됨.

(Seattle Post Intelligencer, 10/12 외)

□ 미국 일부 주들, 전주민대상 건강보험 구상

-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건강보험제도를 구상하고 있음.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적용확대문제는 10여개 이상의 주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기타 수십 개 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각주의 추세는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 : 공화당원 소속인 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는 6백 8십만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에게 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회지도자들과 협상하고 있음.
 - 콜로라도 : 2006년에 설립된 주위원회의 목적은 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보험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1월까지 작성하는 것이었음.
 - 매사추세츠 : 2006년 법은 전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당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펜실베이니아 : Ed Rendell 주지사는 구입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계획 추진을 위해 유세를 펼침. 새법안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월 약280달러로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이 지급됨.
- 연방정부의 논의가 각 주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도 있음.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논의에 따라 각 주들은 어린이 건강보험확대로 인해 성인대상의 건강보험계획을 수정해야만 할 것임. 모든 대통령 예비후보들이 어떤 형태로든 전국건강보험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시민테스크포스와 수많은 주의 입법위원회에서는 다음 대통령까지 기다리기를 꺼려함.

(PHILADELPHIA INQUIRER, 10/14)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대규모 홍수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

- 올 여름 영국의 대홍수로 인해 가계성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건물담보와 관련된 보험료는 지난 분기 3% 인상되었으며 동산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도 인상되었음.
- AA보험사는 앞으로도 보험료가 더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잉글랜드 남서부, 미들랜드, 요크셔, 험버사이드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홍수의 즉각적인 영향만으로도 보험료가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7월~9월에 적용된 건물담보 보험료는 평균 3% 인상되었으며, 동산담보 보험료는 2.3% 인상되었는데, 건물담보 보험료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6%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들이 인상한도를 놓고 가격경쟁을 벌일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힘.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인상되었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분기 기준으로 1.3% 인상되었으며, 제3자 화재 및 도난 담보도 3.57% 인상됨.
 - 이는 전년과 대비하여 제3자 배상책임이 4% 인상된 것임에 비해 종합담보는 8%나 오른 결과이며, 이번 홍수피해로 인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액은 약 1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한편, ABI는 정부가 방어비용에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으면 홍수로 인한 범람우려 지역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인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인 힐러리 벤은 홍수관리 비용을 2008/9년까지 6억5천 프랑, 2009/10까지 7억 파운드, 2010/11까지 8억 파운드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BBC News, 10/8)

□ 프랑스 AXA, “AXA RESEARCH FUND” 설립

- 프랑스의 AXA 그룹은 1억 유로에 달하는 수준의 글로벌 “AXA RESEARCH FUND”를 설립하였으며 2008년 초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동 연구 기금은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부문 교수인 Ezra Suleiman이 Scientific Board의 의장직을 맡아, AXA 감독위원회의 독립 회원 1인과 함께 관리할 것임.
 - 기금의 관리 방식과 정확한 기능 범위 등 세부사항은 2008년 1월 파리에 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될 예정임.
-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 및 재능이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학술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도됨과 함께, AXA는 민영 부문에서 뜻있는 학술 연구를 촉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며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명함.
- AXA는 동 기금이 학술연구기관과 박사학위자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그리고 AXA의 재정보호 사업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영역을 포함한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인간과 환경에 대한 주요 리스크의 이해와 예방 ; 건강, 질병, 고령인구와 장기간병, 환경과 날씨
 - 재무이론과 금융시장
 - 과학, 기술 및 정보시스템 : 웹 2.0, virtual worlds
 - 마케팅, 소비자 예측 및 행동
 - 휴먼 싸이언스 및 조직 생태학
- AXA의 CEO인 Henri de Castries는 동 기금은 민영부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며, 고품질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긴급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독립적인 학술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Insurance Journal, 10/11)

□ RMS, 1987년 영국에서의 폭풍 재발시 손실규모 추정 발표

- RMS(Risk Management Solutions)는 ‘The Great 1987 Windstorm: 20-Year Retrospective’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1987년 영국 남부와 프랑스 북부지방을 강타한 같은 수준의 폭풍이 다시 발생할 경우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전 10월 15일~16일에 불어닥친 폭풍과 유사한 수준의 폭풍이 현재 다시 발생한다면 유럽내 보험손실 범위는 약 82억~143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그 중 영국내 손실이 약 7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됨.
 - 동 추산치는 1987년 폭풍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인 28.5억 달러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RMS의 유럽 폭풍모델링 부문의 수석 모델매니저인 Dr. Barbara Page는 “이러한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현물 가격 상승 뿐 아니라 폭풍에 영향을 받은 영국 지역내 가구 수도 20%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함.
 - 1987년에는 약 7.5백만 가구가 영국 폭풍 피해지역 내에 위치했으나 지금은 가구수가 9백만에 달하며, 건물구축비의 증가와 함께 지역내 상업용 동산과 인프라 투자 또한 성장하였다고 덧붙임.
 - 또한, 동급의 폭풍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진보는 이루어진 반면, 1987년과 같은 허리케인급의 바람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성 폭풍과 같은 사태는 여전히 예측이 어렵다고 밝힘.
- RMS는 조사결과 1987년 폭풍이 강타한 지역은 유사한 수준의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200년에 한번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보험회사들은 35년에 한번일 것으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 대조적임.
 - 또한 1987년과 같은 강렬하고 집중적 폭풍보다 폭풍의 강도는 낮았으나 파급범위는 넓었던 1990년 1월의 ‘다리아’와 같은 폭풍의 보험 손실규모가 훨씬 막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힘.

(Insurance Journal, 10/15)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대형 생보사들 하반기에 국내 채권 확대 자산운용 계획

-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2007년도 하반기 일반계정 자산운용 계획에 의하면 일본 국내 채권투자 비중을 높일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발표함.
 - 해외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엔고의 추이에 따라 각사 모두 보유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
 - 일본국내 주식은 하락 국면에서의 저평가 종목 매입 등을 검토하는 회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목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가 많았으며, 서브 프라임 론은 현시점에서는 각사 모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생보업계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에 관해서 “금년 내에 0.25%의 금리인상을 한 번 실시하겠지만,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대부분이 전망
 - 매입 조건에 대해서는 “ 10년물 채권의 장기금리가 2%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고 1.9% 전후라면 금리 상한선에 가깝다는 판단하에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견해가 많았음.
 - 니혼생명의 경우 “ 10년물 채권의 장기금리는 1.9%를 넘어서면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 미츠이 생명은 수익면에서는 “자본이득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도 금리 수입을 얻는 것이 좋다.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시기를 고집하지 않고, 서서히 구매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힘.
 - 한편, 아사히 생명은 “내년 1~3월중 금리인상 등에 의해 장기금리가 2%를 넘어설 경우는 엔 채권을 추가적으로 보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REUTER 10/19)

□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상품 간소화 추진

- 일본의 중견 손해보험회사인 손해보험재팬은 18일 개인 자동차보험의 신상품 ‘ONE-Step’을 내년 2월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으며 보험금 부담 미지급의 개선방안으로 상품내용을 알기 쉽도록 대폭적으로 특약의 통합을 추진
 - 이 상품은 종전의 개인 자동차보험 특약 수를 126개에서 69개로 거의 반으로 축소시켰고 보상내용이 중복된 특약에 대해서도 통합함.
 - 홀인원을 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골퍼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특약이나 대물사고를 났을 때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물 임시비용 특약’ 등 이용도가 낮은 특약은 폐지
 - 또한, 보상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보험설명서’ 책자에 보험증권을 삽입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적은 약관에 대해서도 문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도표를 사용하는 등 알기 쉽도록 하였음.
- 자동차보험의 상품 라인업도 재검토하여 종전에 5종류였던 자동차보험의 주력상품을 개인형의 ‘원스텝’과 법인형 ‘SUP’의 2가지 상품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체의 특약 수는 개정 전의 215개에서 113개로 반으로 축소됨.
 - 동 회사는 보험금 부담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력인 자동차보험의 상품개정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전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
 - 동 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신상품을 개발한 것은 2004년 1월 이후 4년만이며 자동차보험에 다양한 특약이 복잡하게 추가되어 있어 상품설명이 까다롭다는 대리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상품내용의 간소화를 단행함.
 - 손해보험재팬 외에 도쿄해상보험이나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이 상품 간소화 계획을 표명하고 있음.

(Fuji Sankei Business 10/19)

□ 니혼생명, 환경보호 개인·기업에 우대대출 금리 적용

- 니혼(日本)생명보험은 16일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우대금리 대출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
- 에너지 절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에게 보험회사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개인고객의 경우 니혼생명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닛세이 주택대출’로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
- 이 상품은 에너지 절약이나 내진성이 강한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대출 금리를 정상적인 대출이율에서 0.1% 할인해 주며, 적용기간은 대
출금 차입 개시부터 10년간, 대출금액은 원칙적으로 5000만 엔 이하임.
-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ISO14001’를 취득
하거나 일본 환경청이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환경규격 ‘에코 액션 21’
의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소정의 금리에서 연간 0.25%
우대함.

- 니혼생명보험의 2007년 3월말 시점에 대출잔액은 주택대출이 약 1조 엔
이며, 중소기업 대출이 약 9000억 엔임.
- 니혼생명보험은 새로운 대출고객에 대해서 환경보호 우대 금리제도를 확
대해 나갈 계획임.
- 환경대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하나로서 대형은행 등에
서 도입한 바 있음.
- 니혼생명보험은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도입했
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Fuji Sankei Business 10/17)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기업연금시장 규모 예측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6년 말 현재 2만 4천개 기업의 1,000만 명 이상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금규모가 90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 9개월 후인 금년 9월 말, 그 동안 대형 국유기업이 속속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기금규모가 약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말 대비 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 기업의 보충양로보험과 기본양로보험이 상업보험으로 전환되면, 해마다 약 1,000억 위안의 연금보험료가 증가되면서 오는 2010년에 연금규모가 약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구조적으로 보면, 기금관리회사가 연금투자관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의 투자범위가 좁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 연기금은 그 성격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위에 수익성, 유동성을 더한다는 투자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관리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임.
- 하지만 중국 연금시장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투자범위가 한정돼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국공채, 금융채, 주식 등에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기금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제약 때문임.
- 한편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기업연금시장 규모는 총 1조 8천억 위안으로 세계 3대 연금보험 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증권보, 10/19)

□ 중국 보험업계 지난 5년 동안 체질개선 성공

- 지난 2002년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5년간 중국 보험산업은 성공적인 체질개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으로써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첫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중국 보험시장은 연 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인 수입보험료 총액은 5,641억 위안으로, 2002년의 1.8배에 이르고 있음.
 - 또한, 보감위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보험료는 4,68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2.6%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험시장 규모면에 있어서도 국제 보험시장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음.
 - 2006년 중국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9위를 기록하면서 2000년에 비해 무려 7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보험업계 실력이 탄탄해 졌다는 것인데, 중국 보험산업 자산 총액은 약 2조 5,300억 위안으로 1980년 중국 보험시장이 재개된 이후 2004년 초까지 자산 1조 위안을 만들기 위해 24년이 걸렸지만, 그 위에 또 다시 1조 위안을 추가하는 데는 불과 3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줌.
 - 자본금 규모도 2,000억 위안으로 늘면서 지난 2002년에 비해 5.6배 증가함.
- 셋째, 시장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인데 보험회사 수가 102개(중국 국내사 61개, 외자사 41개)로 지난 2002년 대비 60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보험중개시장이 크게 발전하면서 단 한 개도 없던 중개기구가 2,256개나 생겨났음.

(증권시보, 9/16)

□ 중국 자동차보험료 2,000억 위안 시대 개막

- Swiss Re의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이 지금의 2배로 증가하면서 2012년에 2,000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은 약 1,110억 위안인데, 이러한 향후 예측과 함께 적잖은 외자 보험회사가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을 노리고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은 고급차종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덕분에 고급차종에서만 약 450억 위안의 보험료를 거수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Swiss Re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 배상 한도액이 증가하면서 책임보험의 위험률이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보험 가입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 놓았음.
 - 2006년 중국 내 보유 트럭 수는 1,000만 대를 넘고 있으나 위험률이 높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일부 수백만 위안에 이르는 고급 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며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아예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가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외자보험회사는 중국 국내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는 트럭, 고가자동차 등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증권시보, 10/19)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6년말	07.10.5(금)	07.10.12(금)	07.10.19(금)	전주대비
금리 (%)	美 10년국채	4.71	4.64	4.75	4.75	-
	英 10년국채	4.73	4.95	4.00	4.00	-
	日 10년국채	1.68	1.70	1.70	1.70	-
주가	美 DJIA	12,463.15	14,066.01	14,093.08	13,522.02	+0.19%
	美 Nasdaq	2,415.29	2,780.32	2,805.68	2,725.16	+0.91%
	英 FTSE	6,240.90	6,595.80	6,730.70	6,527.90	+2.05%
	獨 DAX	6,596.92	8,002.18	8,041.26	7,884.12	+0.49%
	佛 CAC40	5,541.76	5,843.24	5,843.95	5,740.48	+0.01%
	日 Nikkei225	17,225.83	17,065.04	17,331.17	16,814.37	+1.56%
	中 상해종합	2,675.47	5,552.30	5,903.26	5,818.05	+6.32%
	대만 가권	7,823.72	9,623.88	9,496.47	9,611.72	-1.32%
	홍콩 항셱	19,964.72	27,831.52	28,838.37	29,465.05	+3.62%
환율	엔/달러	118.90	116.46	117.33	115.48	-1.85
	달러/유로	1.3148	1.4139	1.4202	1.4294	+0.01
	위안/달러	7.8135	7.5060	7.5060	7.5110	-